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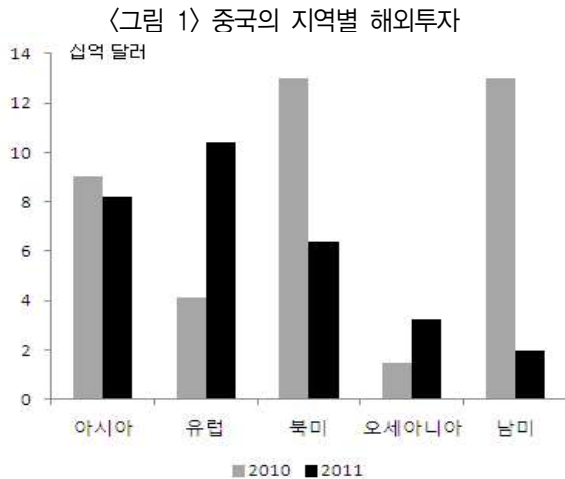


# 중국, 유럽에 대한 투자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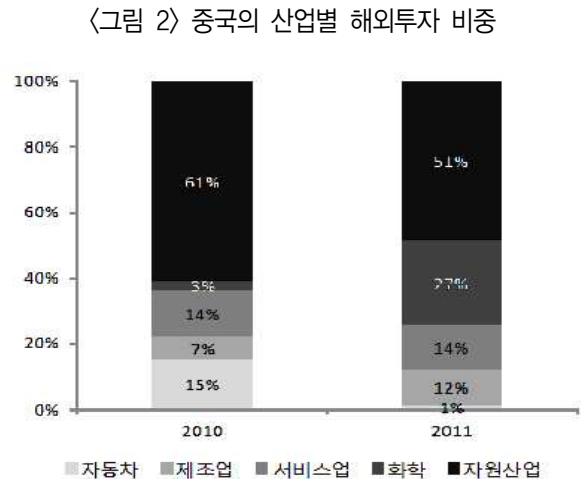
이정환 선임연구원

## ■ 2011년 중국 기업들의 대(對)유럽 투자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A Capital<sup>1)</sup>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해외투자(outbound direct investment)는 680억 달러<sup>2)</sup>로 2010년 688억 달러보다 다소 줄었으나 대유럽 투자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함.
  - 기업 및 국부펀드(CIC)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해외인수 및 합병(M&A),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 투자함.
  - 2011년 대유럽 투자규모는 104억 달러로 2010년 41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함.
- 2011년 대유럽 투자규모가 급증한 것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 M&A 중 34%가 유럽에서 이뤄졌기 때문임.<sup>3)</sup>



자료: A Capital.



자료: A Capital.

1) 중국기업의 대유럽 투자 사모펀드 회사.  
 2) 2011년 해외투자 중 44%는 M&A 형태로 이루어졌으며, 나머지 56%는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(green field investment)로 행해짐.  
 3) 자료는 A Capital의 Dragon Index를 참고하기 바람.

- 유럽 내 M&A 증가는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지역 자산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며, 중국의 해외 M&A가 자원 중심 산업에서 브랜드 개발 및 기술력 중심 산업으로 이동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함.
  - 자원산업에 대한 M&A는 2010년 전체 해외 M&A에서 61%를 차지했으나 2011년 51%로 줄어들었고, 첨단 제조업 및 화학 산업에 대한 M&A는 같은 기간 동안 10%에서 34%로 증가함.

■ 반면, 대(對)미국 투자규모는 2010년 42억 달러에서 2011년 32억 달러로 급감함.

- 2010~2011년에 걸쳐 미국에 대한 투자 중 자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0%로 비중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투자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함.
  - 미국 자원산업 중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자원산업 중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로 대체됨.
-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반감도 미국 투자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작용함.

■ 그러나 중국은 유럽의 경기후퇴 위험 확대로 유럽 국채 매입엔 주저한 것으로 나타남.

- CIC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과 같은 유럽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특수 기관의 책임이며, 장기적 관점에서 CIC와 같은 투자자에겐 적절치 않다고 언급함.
- 2월 초 독일 총리의 방중 당시 유럽 국채 매입에 나서달라던 요청을 거절한바 있음.

■ 중국의 제12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해외투자 촉진정책으로 2011~2015년 동안 8,000억 달러가 해외에 신규 투자될 것으로 보임.

- 중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해외주식에 대한 보유규모가 향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  - 2011년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GDP 대비 비율은 5.3%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(27.7%)에 크게 못 미침.

(Wall Street Journal 2/14, A Capital)